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5. 12. 28.(월) 14:1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허원제 상임위원 (1인)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1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님,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참석하셔서 과반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천지현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도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67차 이후 회의록과 속기록은 위원님들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12월 22일 있었던 제7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결안건 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은 오늘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만 내일 국무회의에 보고 후 별도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까지 기자 분들께서는 엠바고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 (2015-72-30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다음으로 본 안건의 제안이 유입니다. 2015년 7월 700MHz 주파수 일부를 방송에 배정하여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무료 보편적서비스인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고 차세대 방송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미래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UHD 방송 개념 및 동향은 생략하고, <나>항에 있는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추진과제입니다. 먼저 지상파 UHD 도입 일정입니다. 1단계로 평창올림픽 1년 전인 2017년 2월 수도권부터 KBS·MBC·SBS가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만, EBS는 통합사옥 구축 일정에 따라 '17년도 9월부터 UHD 본방송을 개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단계로 '17년 12월부터 광역시권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일원에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게 되고, 3단계는 나머지 시·군 지역은 '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21년까지 전국적으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완료하게 되면 UHD 방송 도입 10년 후인

2027년에 HD 방송 종료를 추진하게 됩니다. '21년 UHD 전국 도입 완료 이후 UHD 방송 커버리지, UHD TV 보급률 등을 종합적하여 고려하여 종료시점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번 항목에 있는 지상파 UHD 방송 표준 제정 및 주파수 공급입니다. 방송표준은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미국방송과 유럽방식을 비교·평가한 후 국내에 적합한 표준을 결정하게 되며, 주파수는 700MHz대역 5개 채널과 DTV대역 채널재배치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채널을 확보하여 전국적으로 UHD 방송이 가능하도록 공급하게 됩니다. HD방송 종료 이후 700MHz대역·기타 여유 주파수를 회수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상파방송사 투자계획입니다. UHD 방송 투자비용은 방송사 자체조달을 원칙으로 추진합니다. 지상파 방송사는 UHD 방송을 위해 12년간 총 6조 7,903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UHD 방송 제작·송신시설 확보 등 시설·장비 투자에 9,604억원, UHD 콘텐츠 투자에 5조 8,29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항목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 허가 및 채널운용 정책과 관련해서 현재 지상파 HD 본방송을 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에 한하여 지상파 UHD 방송을 허가하되, 방송사의 UHD 방송시설·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을 허가 조건으로 부과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방송사의 투자 이행을 담보하게 됩니다. 채널운용방안은 HD 방송·UHD 방송 수신가구 간 차별이 없도록 UHD 채널과 기존 HD채널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이 동시에 방송 되도록 하고, 편성방안은 UHD 편성의 내실화 및 지속 확대를 위해 수도권 본방송 첫해인 '17년에는 UHD 최소 편성비율 5%를 권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편성실적 및 시장성숙도에 따라 재허가 시 최소 편성비율 의무화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번 항목에 있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입니다. <5>번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UHD TV 수신안테나 내장 및 재난방송의 효과적인 수신을 위해 UHD TV에 재난경보 알람 기능 탑재 의무화를 검토하고, 지상파 UHD 방송 도입에 따른 시청자 지원을 위해 UHD 방송 수신 관련 민원 처리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6>번 항목입니다. 지상파 UHD 방송 홍보 및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과 관련해서는 UHD 방송 홍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편성, 공익광고,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UHD 방송 체험단을 운영하여 국내 UHD 방송 기술·장비 및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 기술을 널리 홍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7>번 항목입니다. 민관펀드 활용 UHD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융합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는 민관 공동펀드를 확대하여 잠재력이 큰 UHD 콘텐츠 장르에 중점 투자하고, 신규 부가가치 창출 촉진을 위한 UHD 방송 관련 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8>번 항목입니다. 방송 관련 규제 개선 및 지원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지상파 UHD 방송에서도 현 HD 방송과 동일하게 데이터 방송을 허용하고 IP 기반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되, 구체적인 서비스 유형별 허용 여부는 시청권 보호 및 시청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고, 커버리지 확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투자계획, 독립 DMB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 DMB 정책과 연계하여 HD 이동수신 도입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방송광고 규제 개선, MMS 도입 여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체계로는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부 차관, 지상파방송사·가전사 부사장급, 학계,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상파 UHD방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세부 분과를 운영하여 주파수 확보, UHD 방송 활성화, 시청자지원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지상파 UHD 방송 허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을 결정하며, 7월에 「지상파 UHD방송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

게 됩니다. 그리고 10월까지의 수도권 지상파 UHD 방송 허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추진경과에 보니까 민관 합동 TF 운영이 금년 8월부터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이것을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달 말로, 사실상 오늘로서 운영을 마칠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 합동 TF는 정책방안 수립을 위한 것이고, 합동 TF가 나와서 결과물이 도출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기본계획과 표준이 제정되면 7월부터 다시 그것을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서 추진위원회를 통해 민관과 같이 논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지금 보고를 받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민관 TF 운영을 예를 들면 12월 말로 종료하고 뒤에 향후 계획 중에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이것을 내년 7월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년 1월부터 한다면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7월로 잡아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정책방안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정책방안은 큰 그림이고 아직 구체적인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뒤에 허가 기본계획 수립이 5월이고 표준이 6월에 되면 이제 방송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가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하반기부터 구성하는 것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UHD 방송 도입 관련해서 미래부, 방통위, 지상파 주로 이렇게 주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다면 지금 방통위와 미래부가 운영해 온 정책협의회는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아직 미래부와 명확하게 이야기된 것은 없지만 실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결국 정책협의체가 차관급 공동위원장으로 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책협의체가 지상파 UHD 방송 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미래부와는 이 정책협의회를 하고, 민관TF는 실무 전문가들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2가지 협의체가 진행되다가 그것이 나중에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넘어가는 이런 모양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확대 개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차라리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일찌감치 론칭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7월이 적정하다면 미래부와 방통위 간의 정책협의회와 민관TF는 그때까지 쭉 가다가 적정 시점에서 릴레이되는 것으로 생각해야겠네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래부와 이 정도쯤에 적당하다고 합의한 안이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심사 기본계획 수립할 때 물론 기본적으로 방송정책국에서 작업을 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을 의결하겠지만 그래도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장래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TF 또는 하여간 어떤 형태든지 다른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표준방식 결정도 저희가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표준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어떤 협의체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현재도 미래부에 협의체가 있고 그것이 이어져서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여기에 그것이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인 향후 계획의 틀은 유지하되 그런 개개 차관급의 지상파 UHD 협의체, 또는 민관TF, 그다음에 표준방식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기구 등등이 어떻게 언제까지 역할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누구에게 인수인계가 되어서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체계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오늘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기본계획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향후 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들은 추진위원회 단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 다시 보고되어서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중요한 사항들은 대부분 위원회 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 사안은 의결을 거친다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지금도 지상파방송사와 학계와 함께 TF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 보고 드렸듯이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상파 DTV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DTV 전환한 것을 보면 '97년 말인가 그때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나왔었고, 그것이 2004년 정도에 전송방식 때문에 한 번 더 정부 내에서 의결을 거쳤고,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최종적으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전환됐습니다.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논의를 거쳤었고, 그때 안과 비교해 보면 오늘 보고된 기본계획안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상당히 포괄적으로 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기주 위원님께서서는 당시에 DTV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시고 그 뒤에 DTV 전송방식 논의에 관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대략 보면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임에도 불구하고 DTV 전환과 관련된 기본계획에는 시설과 관련된 전환계획, 즉 투자계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큰 것이 수신환경 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홍보, 크게 보면 DTV 추진계획의 큰 골격은 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과되어서 말 그대로 방송 활성화를 위한 부가서비스 도입 계획, 그리고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큰 것들만 몇 개 보고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투자나 이런 콘텐츠 제작계획은 어차피 저희들이 앞으로 UHD 방송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일정 주기로 계속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그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수신환경 개선 문제 이것은 대단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서비스 UHD 방송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봐야 하는데 DTV할 때도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직접수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유료방송을 통해서 재전송 방식으로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현재로 수상기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신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가장 컸던 것은 뭐냐 하면 수신환경의 주체가 방송사냐, 아니면 정부가 해야 하느냐? 당연히 정부에서는 방송사가 해야 한다고 했고, 방송사에서는 '방송사가 하더라도 정부가 일정 정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 팽팽게임이 있었습니다. DTV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면서 지상파 UHD 추진위원회를 꾸릴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다양한 논의를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세계 최초로 2017년 2월부터 UHD 본방송을 지상파들이 KBS·MBC·SBS가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1단계 수도권, 2단계 전국 광역시권 여기는 2017년 이내에, 2017년 2월과 12월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2단계와 3단계 사이 광역시권과 시·군 기초자치 지역에 3년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자 복지의 지역편차, 지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으로서는 이것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700MHz 대역의 주파수 분배 논의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전문가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700MHz대역 기존 계획을 3년만 앞당겨서 통합 정리하면 4페이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여유 주파수를 회수하겠다고 나와 있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여유주파수가 아니라 유휴 불용주파수가 있습니다. 이통사들이 사 놓았지만 쓰지 않는 주파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회수하거나 정리를 했으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있는데 제가 전문성이 약한 탓에 더 이상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2·3단계 중에 특히 2단계, 3단계의 시차를 좁히는데 주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지역방송사의 투자계획과 미래부의 주파수 공급계획 등을 저희가 다 검토해 본 결과, 2020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선으로 이야기해서 방송사들까지 다 합의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UHD가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좀 더 당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평창동계올림픽이 있는데 시·군지역에서 동시에 UHD 방송을 통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시청자 불만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 점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UHD가 도입된 뒤에 여유 주파수를 회수하겠다' 그 주파수는 지금까지 방송용 주파수였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기타 여유대역 등 특별히 700MHz대역이라는 것은 현재 5개를 방송용으로 준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HD 방송이 종료가 되면 HD 방송용으로 쓰고 있던 기존 방송용 주파수도 저희가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재배치를 하고 700MHz대역으로 UHD 쓰던 것들을 기존 DTV 대역으로 옮기고 그리고 주파수 효율이 좋기 때문에 기존 DTV보다 한 2분의 1, 3분의 1 범위만 있으면 UHD 방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역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방송 주파수이기 때문에 실정법상 방송용 주파수 관리 운영은 방통위 소관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을 다른 데서 건드리지 않도록, 우리도 통신정책도 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에서 뺏어가거나 건드리지 않도록 정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것은 국민의 주파수인 관계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계속 수세이기 때문에 피해의식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ATSC, UHD 방송 표준 문제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ATSC가 다국적 기구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미국방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 한국의 ETRI에서 개발 특허권을 가진 방송기술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ATSC 본부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식 방식을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은 글로벌로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업체도 ATSC 표준 제정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ATSC 3.0기술이 표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LG전자나 ETRI에서 만든 기술도 표준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국제기구인지, 민간 협회인지 성격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개발한 특허권을 가진 방송기술이 여기에 많이 제공되어 있다면 미국방식이라고 표기하지 말고 인터내셔널 글로벌답게 한국이 상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래부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방송기술이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통 '미국식', '미국식' 시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위치는 다국적 기업이나 다국적 국제기구인 경우에 미국에 두는 것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계속 미국방식 이렇게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미국방식에 우리 ETRI에서 개발한 특허권을 가진..., 특허권을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정확한 수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기술들이 ETRI에서 개발한 기술이 표준 채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것들을 부연설명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를 보시면 UHD를 재난방송에 활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미국에서 ATSC 3.0 기술 개발할 때 재난방송용으로 쓰는 방안도 기술표준에 담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안테나만 내장되면 이동 간 긴급 재난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 이동보다는 고정형TV 같은 경우에 긴급신호를 보내줘서 자동적으로 TV가 꺼져 있다 하더라도 켜져서 방송이 나오도록 하는 기술이 ATSC 3.0 기술표준에 담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동 간 수신은 아닙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동수신보다는 고정수신TV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동 간 수신은 왜 그러냐 하면 DMB가 기존에 깔려 있기 때문에 DMB 정책을 종합 검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미리 공개할 단계는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눈에 띄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축하해야 할 일이고 세계적으로 내놓아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인데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 전문가십니다. 주파수, 표준... 제가 보니까 제3기 방통위 출범 초기부터 금년 7월에 700MHz 주파수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 사무처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4, 5개월 동안 TF 운영하면서 오늘 이 계획을 만들 기까지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좀 더 구체화하고 결국 지상파들과 같이 계획대로 얼마만큼 충실히 실천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한 것보다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6페이지 맨 밑에 규제개선 및 지원방안 검토 중에 'MMS 도입 여부 등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오늘 아침 일부 언론보도에 크게 보도가 된 것 같은데 EBS 외 지상파들에게 추가적으로 채널을 허용하기로 방통위가 결정한 것처럼 많은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뜻과 또 하나는 제 기억에 2주 전 쯤 MMS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 티타임이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국장께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UHD MMS는 지금 현재 압축기술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압축기술도 더 좋아져서 UHD 현재도 6Mbps를 쓰게 되는데 그 기술이 좀 더 발달해서 만약 MMS 도입이 가능해진다면 그때 정책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겠다는 취지이고, 현재로서는 MMS가 UHD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전영만 국장께서 H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최근에 오늘날 해도 언론지상에서 지상파 MMS 도입에 대해서 많은 보도가 났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통위가 EBS 외 지상파방송사에 대해서 MMS 추가 채널 허용을 추진한다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EBS MMS 채널 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저희가 검토한 바도 없고, 또한 현재로서는 MMS 도입 계획도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보면 지상파방송 위주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문에서 보면 EBS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MMS 본방송을 도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낮은 수신율이다. 직접 수신율이 어느 정도 높아야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MMS 도입이라는 것이 될 텐데 직접 수신율이 지금 우리가 6.7%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EBS MMS 본방송을 도입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수신율에도 불구하고 EBS 2TV는

지금 현재 초·중학 학습이나 영어교육 등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교육비 절감 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범서비스를 하는 동안에도 밝혀졌지만 기술적 안정성이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EBS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본방송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 입장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까? 사무처에서, 틀린 것인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입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최근에 EBS MMS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상파사업자, 종편사업자 등등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수렴을 했으나 그것이 최종안이 아니고 단지 EBS 기본 서비스 위에 본방송 도입을 위해서 제도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다른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거나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제3기 작년에 출범할 때도 정책과제 리스트업 할 때도 MMS 문제는 들어가 있었고, 금년에도 아마 제 기억으로 금년 업무계획에 '정책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당시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EBS에 한해서 시범서비스를 하자고 한 것이고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앞으로 MMS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무처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는 것은 앞으로 아주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도 모르는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EBS 이외 다른 지상파에서 MMS를 허가해 달라는 요구가 강합니까? 요구가 있는 줄 알지만 얼마나 강합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EBS 외 다른 요구들이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예, MMS 다채널 방송을 우리도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물론 그것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일부 하는 방송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MMS를 하려면 재원이 들어가는데 재원 확보 보장이 안 된다면 아마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유료방송을 겸영하는 언론들이 방통위가 MMS를 또 다른 지상파에게 주려고 한다고 반대하는 차원에서 보도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는 국회 미방위에서도 보름여 전, 한 달여 전에 어떤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MMS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느냐?” 전체회의였으니까 위원장님도 같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때 “무료 보편서비스, 공영방송이라면 그것은 확대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라고만 답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가까이 지난주 23일 오전입니다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역시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EBS의 MMS 시범방송의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해서 EBS 측이 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어떤 위원님이 “다른 지상파방송에도 이것을 확대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우리끼리 논의를 한 뒤였기 때문에 지금 다채널 방송은 EBS가 시범방송인데 우선 이것이 안착되고 제대로 되어 가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 채널의 다양화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문제는 콘텐츠이다. 지상파방송들이 콘텐츠가 충분히 있다고 이야기하면 그때 MMS를 좀 더 넓히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 밖에서 오신 외부 위원들인데 시청자단체 대표들도 계셨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MMS를 다른 지상파에 더 확대시킬 계획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것입니다. 지금 채널의 다양성은 과도할 정도로 해 뒀고, 시청자들이 채널을 선택하기 어려울 만큼 혼란스러울 만큼 다양합니다. 거기에 콘텐츠가 제대로 없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콘텐츠가 제대로 되고 시청자들이 먼저 요구하면 그때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콘텐츠는 충분히 확보되어야겠고, 일단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직수율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또 소비자들의, 시청자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야기 나온 김에 한마디 저도 덧붙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몇 개 신문에서 저희의 정책에 대해서 '지상파 퍼주기 정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8쪽지를 보았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상파에 편향되게 정책을 했느냐? 백번 양보해서 2개 정도 논란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광고총량제 문제나 UHD 방송을 위한 주파수 배분 이런 것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광고총량제에 대해서도 추후에 그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MMS나 UHD 방송을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MMS는 특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교육에 대한 공적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도입을 고려했기 때문에 공적 성격이 큼니다. 특혜가 아닙니다. 또 UHD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고 주파수 배분도 이동통신과 방송 쪽에 상생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특혜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상파 MMS나 UHD 방송은 방송기술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MMS는 뉴미디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디지털 전환 초기 영국 같은 경우 90년대 후반에 도입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TV 전환 초기부터 MMS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입하자, 말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원래 정책적 논의를 실기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UHD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파수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더 효율적인 통신용으로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으나 저희가 UHD를 도입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료 보편적서비스로서 도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UHD 전환이 끝나면 2027년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상파들의 주파수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가 부가서비스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검토는 필요시 하겠지만 방송사들이 UHD 전환을 위해서 장비, 설비 그리고 콘텐츠에 투자하는 것이 12년 동안 6조 7,900 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없습니다. 그것은 방송사들의 자체 계획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습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로서 UHD 방송을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대부분의 직접적인 비용은 방송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특혜적 요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UHD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수신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UHD 이야기와 그다음에 오늘 보도 때문에 그런지 MMS가 조금 뒤섞여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UHD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계획이 아직은 구체화되기 전에 소위 말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따른 이후의 실행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던 3단계 도입 시기, 또 방송사들의 콘텐츠 투자계획,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수준 높은 UHD 콘텐츠가 원활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지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표준 결정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UHD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니까 일단 한시름 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부터 하나하나 더 꼼꼼하게 챙기면서 내년에 그렇게 작업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가 예상했던 그 시기에 맞추는 것은 굉장히 빠듯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각 방송사들을 독려해서 내년에 예정된 콘텐츠 투자, 후년에 예정된 콘텐츠 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것이 2018년 동계 올림픽 때 소위 명목은 UHD로 중계를 한다, 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UHD 지상파 콘텐츠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제로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 별 볼 것이 없더라'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공들여 놓은 것이 다 허물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특히 꼭 외국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지금 2020년 동계올림픽 때 UHD를 통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고 그다음에 방송장비나 또는 수신기에 있어서 뒤처져 있는 것을 그 기회를 계기로 해서 다시 세계 최고로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2년이나 앞서 있는 상황이 유리하긴 하지만 그 2년 앞서 있는 때까지 충실히 하지 못하면 오히려 2년 앞섰다는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

다만 앞으로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각 해당 파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반드시 2018년 동계올림픽 때 제대로 된 UHD 콘텐츠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것은 단순히 방송사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국가의 품격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도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MMS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잠깐 정리하면 지상파 UHD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고 MMS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다 기본 개념이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것은 유료방송처럼 수신료를 별도로 내지 않더라도 직접수신을 해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EBS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본방송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MMS에 관해서 여러 논의가 있어서 다른 지상파들도 실험방송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독 EBS에만 시범서비스를 허용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본방송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비록 직접 수신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교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특히 유료방송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비록 직접 수신율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이 교육은 제대로 전달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예외적으로 지금 EBS에 대해서 시범서비스와 본방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적인 지상파 MMS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료 보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수신율이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만 MMS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MMS 채널을 단순히 외부에서 좋은 교양·다큐멘터리나 사다가 틀고, 그다음에 기존에 지상파 채널에서 했던 방송을 재방송이나 하고 이런 방송을 위해서 MMS를 논의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맞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충분한 자원 마련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MMS의 모습은 상업광고가 없는 그런 MMS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 그러면 그와 같은 콘텐츠 제작, 또 콘텐츠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지상파 UHD에서 보는 것처럼 지상파는 그와 별도로 약 11년에 걸쳐서이긴 하지만 6조 8,000억원이나 되는 지상파 UHD를 위한 투자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다 고려가 되어서 저희가 MMS 방안을 검토한 것이고, 그다음에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이 내년에 EBS에 대한 MMS를 본방송으로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집어넣어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MMS를 위한 규정들이 다 들어가야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다른 방송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가 오해가

되어서 전달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MMS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른 지상파의 MMS에 대해서는 도입을 검토한 바도 없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혔으면 합니다.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에 관한 건 - (주)KNN 제2FM방송국 (2015-72-306)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전영만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라디오방송(FM)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의결주문입니다. <가> (주)KNN 제2FM방송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나>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과 해당 사업자의 신청내용 허가기간 2년을 고려하여 전파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주)KNN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한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주)KNN의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법인 현황입니다. 신청인은 (주)KNN 대표자 문혁주이고, 심사대상은 KNN 제2FM방송국이며, 신청일자는 '14년 9월 25일이고, 방송구역은 부산광역시 일원이고, 방송국 소재지는 부산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KNN타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과사항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 항목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전문가 심사평가 결과 KNN 제2FM방송국은 총 695.63점을 획득하였습니다. <다> 항목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주)KNN은 TV, FM을 허가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방송국 운영 및 기술적 능력 등은 문제가 없으며, 지역 소재 민영방송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송품질 향상 및 부산지역민의 매체선택권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나 난시청 해소를 위한 수신환경 개선 계획의 수립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KNN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청취자들에게 환원하는 것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KBS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주)KNN이 제시한 안테나를 사용할 경우 혼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KBS도 동의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입니다. 미래부는 KNN의 신규라디오 방송국 허가와 관련해서 방송국 개설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항목을 만족하나 미약한 전파혼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건을 부관사항에 첨부함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과 함께 EBS양산FM방송보조국과 전파혼신이 예상되나 혼신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분석되므로 안테나 설치방법을 개선·설치하고, 설치 후 시험전파 발사기간 동안 혼신여부를 측정하여 혼신 발생 시 차폐시설 추가 설치 등 기술적 조정을 통해 혼신을 해소하는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무국의 검토의견입니다. 신규허가 여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KNN은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받았으며, 미래부의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KNN 제2FM방송국을 허가함이 적절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과 해당 사업자의 내용 허가기간 2년을 고려하여 (주)KNN이 허가받은 타 방송국 유효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년으로 하고,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청취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입니다. 먼저 허가조건으로서 KNN이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 개국 후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방통위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주)KNN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해당 방송구역 지역 청취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혼신원인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등 일반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권고사항입니다. KNN에 대해서 지역성 구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방송프로그램 품질 제고와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되, (주)KNN 소속의 문화재단을 통해 사회환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익사업 수혜자의 지원이 축소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방송국 개국 이후에 예상되는 청취자 불만 민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민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청취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민원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권고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구체적인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은 <붙임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중 KNN 제2FM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KNN 신규FM 라디오방송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기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기주 위원님 특별히 덧붙일 말씀 없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것이 방송 커버리지가 처음 신청할 때는 40%라고 들었습니다. 그 뒤에 정확하게 30% 됐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면적 기준으로 하면 약 34% 정도 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더 떨어졌네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부의 기술심사 결과, 방송 면적으로 하면 34.35%였지만 가구 기준으로 하면 57.28%였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가구기준이 중요할 수 있겠네요. 어쨌거나 커버리지가 많이 떨어지는 방송국의 허가였는데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이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방송사업의 확대 차원에서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기존의 방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방송국을 개설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많은 것 같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개인은 설치할 수 없고 신규 법인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재정적 능력이나 기술적 능력을 다 검증을 해야 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별도로 검증해 봐야 하고...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중요한 것은 그 지역, 그 권역에 방송을 할 수 있는 채널 주파수가 비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공모하는 것입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공모가 아니고 저희 방송법, 전파법에 따르면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에게 신청해서 그 기술 결과를 미래부에서 받고, 그다음에 방통위가 나머지 방송법상에 있는 심사사항을 해서 그것이 다 충족한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지역의 시청자들 복지들을 위해서 채널을 하나 줄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채널이 가능하다, 기존 사업자뿐만 아니고 일반 어떤 개인이 법인을 만들어서 하건 간에 주파수가 비어 있다고 공모해서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사업자가 사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주파수를 찾았는지 어떻게 해서 커버리지도 매우 낮은데 이렇게 신청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조금 인위적이고 인공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 다른 방송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서 신청할 경우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방송법이나 전파법상에는 따로 공모하는 절차는 없고,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별 건별로 검토해서 신청 후 그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게 심사를 한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공모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것이 비어 있다고 신청하라고 공모는 아니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방송사업자와 일반 개인 또는 법인간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현재도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방송사 투자라든지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의 방송사업자들이 신청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더 빨리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인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이런 것 말고는 다른 불리한 점이나 차별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관련 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이 심사위원장을 맡으셔서 꼼꼼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검해 주셔야 할 것이 현재 FM에 대한 수요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첫째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조건으로 안 붙더라도 대체로 지역민방, 지역MBC에서 라디오를 전담하는 인력들이 거의 없거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히 수중계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담인력들이 없습니다. 라디오 PD나 이런 분들이 없습니다.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특히 이렇게 새로 허가를 내주는 사업자부터 해서, 왜냐하면 라디오 전문성은 당연히 방송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질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인력이나 전담하는 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규로 내주는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라디오 방송을 전담하는 인력들이 어떻게 배치·운영되고 있는지를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KNN에서도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규 인력 채용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허가조건은 부과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KNN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앞서 김재홍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업자를 신규로 특히 FM을 주는 경우를 보면 사업자들이 주파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찾아서 미래부 쪽 먼저 협의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워서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신규 사업자를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찾아서 있으면 하는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규 사업자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미래부에서 '주파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저희가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2일에 전파법 개정안이 공표가 됐습니다. 내년 6월에 시행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그동안 공공주파수는 요구 순서에 따라서 공급을 했습니다. 요구를 하면 그것이 주파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순서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수요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협의, 조정을 거쳐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위원회도 이제 주파수 수요 및 이용자 계획을 수립해서 미래부와 공동으로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들은 이번 UHD 주파수 배분처럼 같이 협의하지만 큰 틀에서 주파수 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FM이나 라디오 방송국을 더 허가를 해 줄지 말지 이런 계획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체라디오도 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W 미만으로 운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7개 있는 공동체라디오는 시범서비스 때 했던 출력 1W 그대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최근에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수요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230개가 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최소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10W 정도로 공동체라디오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 1W를 가지고 계속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의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로 든 것입니다만 앞으로 주파수 운영과 관련한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신규FM 허가,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나가 있는 FM들에 대해서 좀 더 출력을 증강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계획 수립한 다음에 미래부와 잘 협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미래부와 협의하겠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공동체라디오는 법에 10W가 맞습니다. 그리고 1W로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주파수 출력을 늘리면 전파 혼·간섭 문제 때문에, 아마 그것을 볼 때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예를 든 것인데 기술적으로 크게 기존 사업자들에게 혼신이 안 생기고 발생이 안 되고 증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검토해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안전에 대해서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국장님 계시니까 MMS 관련된 오늘 보도와 관련해서 저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직접 수신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EBS의 경우에 직접 수신율이 높지 않으니까 유료방송을 통해서 EBS2가 시범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던 것처럼 EBS의 경우에는 교육방송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초창기에 EBS2를 소위 안테나를 별도로 설치해서 직접수신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EBS에 들어온 수많은 민원의 상당 부분이 “왜 직접수신으로만 보게 하고 유료방송을 통해서는 EBS2를 볼 수 없습니까?”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방송이라는 특이성을 고려해서 결국에는 사교육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EBS2도 가능한 한 유료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유료방송으로 재전송될 수 있도록 EBS와 유료방송사들이 협의하고 저희가 거기에 또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오해를 하시면 곤란한 것이 기본적으로 MMS를 지상파에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EBS와 같이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다 내보내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생각하고 있다는 오해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본적으로 유료방송을 통해서 직접 수신율을 높이지 않고 유료방송을 통해서 내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MMS로서의 고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MMS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직접수신율과 관련해서 MMS를 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 전영만 방송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보고사항

가. 2015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2015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2015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10월 23일 '15년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12월 18일까지 KISDI 평가지원단에서 방송사업자의 자료 접수 및 분석 평가를 하였습니다. 지난주 10월 23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평

가 개요입니다.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는 총 91개 방송사업자, 143개 채널이 참여했습니다. 대기업 계열PP가 67개 채널, 개별PP가 76개 채널이 참여했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평가항목은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 등 총 3개 구분으로 나누어서 총 13개 항목을 평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평가대비 개선사항입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향상을 위해 제작비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했고, 자료제출이 영업 비밀 이유로 어려웠던 콘텐츠 저작권 보유 항목은 삭제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및 해외시장 유통 역량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하여 콘텐츠 유통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는 매우우수 15%, 우수 25%, 보통 35% 등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총점 기준에서 평가결과를 먼저 보고드리면 계열PP 그룹에서는 매우우수 등급에 XTM, OGN, Mnet, tvN, SBS GOLF 등 10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열별로는 CJ계열 5개, SBS계열 3개, MBC계열 2개가 되겠습니다. 바둑TV는 우수에서 매우우수로 상승했습니다. 우수 등급에는 KBSN Sports, 온스타일, OCN, 스토리온 등 17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열별로는 CJ계열 9개, HCN계열 2개, KBS계열, MBC계열, SBS계열, IHQ, 스카이라이프계열, 티브로드계열 각각 1개가 되겠습니다.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OCN, 중화TV는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했고, KBSN Sports는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습니다. 총점기준으로 개별PP 그룹 평가 결과입니다. 매우 우수 등급에는 예술TV아르페, JTBC Golf, MTN, SPOTV2, FTV 등 11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데일리TV는 우수에서 매우우수로 상승했고, 애니박스, 정철영어TV는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습니다. 우수 등급에는 정철영어TV, ETN, 복지TV, 아이넷 등 20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점 기준 등급별 채널명 평가결과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 경쟁력 분야에서 계열PP 그룹에 매우우수 등급에는 SBS GOLF, SBS Sports, SBS Plus, SBS CNBC, 트렌디 등 13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CJ계열 5개, SBS계열 4개, MBC계열 2개, HCN계열, C&M계열이 각각 1개가 되었습니다. XTM, MBC스포츠플러스, Y-STAR, SBS플러스, OGN은 우수에서 매우우수로 상승했습니다. 우수등급에는 티캐스트 e채널, SBS funE, ONT, 채널팅 등 16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계열별로는 KBS계열과 HCN계열이 각각 4개, MBC계열 3개, CJ계열과 티브로드계열이 각각 2개, SBS계열 1개가 포함되었습니다. e채널, MBC뮤직, 채널칭 ONT는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습니다. 개별PP 그룹입니다. 자원경쟁력 분야에서 개별PP의 매우우수 등급에는 복지TV, K-바둑, 예술TV아르페, 이데일리TV, 마운틴TV 등 11개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POTV2,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ETN은 우수에서 매우우수로 상승했고, 애니박스, 애니원, FTV, I.NET는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습니다. 우수 등급에 FTV, 한국경제TV, FUN TV, 리빙TV, I.NET, 브레인TV 등 19개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원경쟁력 등급별 평가결과는 <표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입니다. 계열PP 그룹에서 매우우수 등급에 바둑TV, OGN, Mnet, XTM 등 10개 채널이 포함되어 있으며, CJ계열 4개, SBS계열 3개, MBC계열 2개, KBS계열 1개가 되겠습니다. 10개 채널 모두 전년도에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우수 등급에는 tvN, 스토리온, skySports, 드라마큐브, Y-STAR 등 17개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열별로는 CJ계열 8개, 스카이라이프계열 3개, 티브로드계열과 HCN계열이 각각 2개, SBS계열과 C&M계열이 각각 1개가 되겠습니다. tvN과 SBS MTV는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습니다. 개별PP 그룹에서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의 매우우수 등급에는 정철영어TV, JTBC Golf, 예술TV아르페, MTN, K바둑 등 16개 채널이 포함되

있습니다. 서울경제TV는 우수에서 매우우수로 상승했고, 부동산경제TV는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습니다. 우수 등급에는 FTV, ETN, 복지TV, 부동산경제TV, 하이라이트TV 등 15개 채널이 포함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저희가 대외적으로 제작역량 평가 결과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표를 합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지금 우수 등급 이상은 공표하고, 보통, 미흡, 매우미흡은 공표하지 않기로 해서 비공개로 위원님들 옆에 별도로 평가결과는 제시해 놓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공표하는 것은 각 분야별로 공표를 합니까, 전체만 합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총점과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분야별로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읽으시려고 하는 부분에 보면 제가 보니까 무슨 무슨 채널은 우수에서 보통으로 하락 이렇게 써놓으면 아까 보통은 공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보통이 공개가 된 결과가 되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안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다음 7페이지입니다. 프로세스 경쟁력 등급별 평가결과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과 경쟁력 분야입니다. 계열PP 그룹에서 매우우수 등급에 캐치온플러스, 중화TV, 캐치온, 투니버스, 슈퍼액션, 바둑TV 등 10개 채널로 모두 CJ계열입니다. 캐치온플러스, 중화TV, 캐치온 투니버스, 바둑TV, OGN, tvN, 올리브네트워킹은 우수에서 매우우수로 상승했습니다. KBS kids와 KBSN LIFE는 매우우수에서 우수로 하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 등급에 OCN, 채널CGV, 온스타일, 스토리온 등 30개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J와 스카이라이프계열이 각각 6개, HCN계열 4개, CMB와 티브로드 계열이 각 3개, C&M계열, MBC계열, SBS계열, KBS계열이 각각 2개가 되겠습니다. 개별PP 그룹입니다. 매우우수 등급에 JTBC Golf, 어린이TV, GTV, 디원 등 14개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원, 애니박스, JTBC GOLF, FTV는 우수에서 매우우수로 상승했습니다. 우수 등급에는 홈스토리, 비온드동아, Golf Channel Korea, EDGE TV, AsiaN 등 16개 채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4>는 성과 경쟁력 등급별 평가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평가결과는 시청자 또는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수 등급 이상만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부와 협업을 통해 등록PP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평가 시 10%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우수 중소채널을 선정하는 경우에 미래부와 협의해서 콘텐츠 경쟁력 평가 결과가 일정 비율 반영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이번 평가결과에서 개별PP 중에 우수자를 선정해서 『제작역량 우수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평가도 이기주 위원님께서 총괄해서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오늘 3건 다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네요. UHD도 미래부와 사이에 정책협의회를 잘 원만하게 이끌어 주셨고, 오늘 이기주 위원님의 날이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매우우수 등급을 보면 CJ계열 4개, SBS계열 3개, MBC계열 2개, KBS계열 1개 이런 방송사들이 계열PP를 잘 선도해 가는 것 같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역시 체계가 갖춰진 큰 방송사업자들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수 등급 아래는 다들 일종의 독립PP, 이른바 군소사업자들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이것은 아까 부위원장님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을 35%, 미흡을 20%, 매우미흡을 5%로 해서 대기업 계열PP와 개별PP를 각각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비율별로 미흡과 매우미흡도 대기업 계열PP도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평가기준이 다릅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평가기준은 동일합니다. 대신에 그룹을 나누어서 대기업 계열PP와 중소 개별PP를 나누어서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PP의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서 10% 반영하기 때문에 같이 평가하면 중소PP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분리해서 평가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자 계열PP는 67개를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우수 15%, 우수 25%, 보통 35%, 미흡 20%, 매우미흡 5%, 마치 대학에서 학점 주듯이 이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차례로 줄을 세워서 거기에서 끊어내는 것이지요?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또 개별PP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계열PP는 계열PP끼리 경쟁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개별PP는 개별PP끼리 경쟁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계열PP와 개별PP 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준을 삼습니까?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저희가 중소기업 구분 기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파계열과 대기업계열PP는 별도로 나누었습니다. 대기업계열PP는 CJ, 티캐스트, 스카이라이프, 현대미디어 등등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기준으로 보면 JTBC Golf 같은 것이 개별PP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JTBC Golf가 우리가 정한 분류기준으로 보면 개별PP로 들어갑니까?

○ 나금륜 사무관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저 밑에 보면 JTBC Golf가 개별PP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개별PP 그룹에 JTBC Golf가 있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 나금륜 사무관

- 계열이나 개별을 방통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통위가 발표하는 재산상황공표집 조사 때

방송사들이 본인들이 어디 계열의 무엇이다라고 내거나 아까 말씀하신 JTBC Golf는 계열에 있는 것으로 보통 알지만 개별PP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냐하면 사업자가 경쟁하기 용이한 데로 갈 수 있습니다. JTBC GOLF는 중앙미디어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 나금륜 사무관

- 작년부터 개별과 계열을 분리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면 그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통상적으로 개별PP와 계열PP를 분류하는 것과는 우리의 분류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나금륜 사무관

- 조금 달라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재산상황공표 자료 제출시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해당 방송사가 자기들 기준으로 나는 계열PP다, 개별PP다라고 신청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줄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은 계열PP고, 어떤 것은 개별PP라고 결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 문제는 방송기반국에서 미래부의 몇 가지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그때 이것처럼 프로젝트별로 계열PP다, 개별PP다 할 것인지, 몇 가지 등록기준이 될지 방통위와 미래부가 실태조사를 할 때 기준이 될지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어쨌든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제작역량 평가할 때 이쪽에 서느냐, 저쪽에 서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러 가지 상황상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SBS GOLF와 JTBC Golf를 보면 SBS GOLF는 계열PP 그룹에 들어가 있고, JTBC Golf는 개별PP로 들어가 있어서 이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그렇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계열PP와 개별PP 각 그룹을 나누는 기준을 한 번 추후에 다시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있어서 혹시라도 문제점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결과에 어떤 변동을 주자는 것은 아니고 일단 올해 결과는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다 평가가 된 것이니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올해 마지막 회의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고언을 드리게 되어서 저도 매우 무겁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 정체성과 관련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막중하고 일정한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외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료 중에서, 방통위의 상임위원 중에서 한 분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통위원으로서 사의표명과 함께 거기에다 일신상의 사유다라고 알고 대개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준비다'는 정도만 사유를 밝히면 그것으로 시빗거리는 크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견과 선거 공약성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사를 보면 '방통위를 통해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것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통위 사무처가 홍보협력관실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사의표명과 사의의 이유, 거기에 훨씬 더 나아가서 정견성 선거공약성 발언을 포함시킨 것을 외부의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입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좀 곤혹스러울지 모르지만 역시 질문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사의표명을 했다는 것을 지금 더듬어 보니까 12월 21일자 연합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구두로 표명했을 리는 없습니다. 사직원을 언제 제출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사직원을 언제 제출하셨는지 저로서는 알 수 없고, 사의표명한 부분은 아마 홍보협력담당관실을 거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21일 언론을 통해 공개 발표했으면 사의표명이라는 것을 구두로 했다는 것입니까? 사직원이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나 위원장을 거쳐서 가는 것 아닙니까?

○ 정종기 기획조정실장

- 제가 그 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를 거쳐서 안 갔으니까 저를 거쳐서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행정적으로...

○ 김재홍 부위원장

- 방통위와 관계없이 인사혁신처에 전화로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아니요. 방통위를 통해서 가는데 운영지원과를 통해서든지 행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위원장께서도 몰랐다면 이것은 정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의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알았지요. 그런데 사직서를 언제 제출해서 어떤 경로로 갔는지, 저를 거쳐서 가지 않은 것이라 제가 모를 뿐이지, 그 이후 적절한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해서 인사혁신처를 통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는 이것을 문제화시킬 생각이라기보다는 부위원장으로서 제 직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사의표명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사직원을 냈는지, 구두로 했는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정체성에 대해 일정한 책임이 있는 부위원장으로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무처나 행정 담당자가 그것을 알았더라면 위원장, 부위원장에게는 당연히 보고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문제제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언론과 전국언론노조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이, 또 다른 어떤 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저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저는 직무유기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이것은 방통위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도 선거법 관련 문제는 언론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 120일 전에 그 직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교원도 있고 언론인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직원을 제출한 날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선거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입니다. 그러면 사의표명하고 다들 언론기자들은 14일부터 21일 사이에 사직원을 보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직은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선거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티타임 때에 참석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송평가규칙 개정안, 방송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에 포함시키고 그것, 많은 열띤 토론이 있었고 저는 반대했고 고삼석 위원께서도 수정안이 많이 다듬어졌지만 찬성하지 않는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소수파'라고 지칭하면서 "소수의견을 붙여서 의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발언도 나왔고, 오늘 오전에 티타임에서 한 번 더 논의하고 이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예정됐던 안건입니다, 그 위원이 떠나기 전에 의결할 것으로. 저는 21일 티타임, 또 23일 전체회의에 참석한 행위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을 외부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무처 담당국·과에서 법적인 자문을 거치든지 공식 의견을 저에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시민단체 외부에 답변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업무과약을 잘못했고 방통위 내에서 부위원장으로 직무 수행을 잘못했습니다. 이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도 몰랐고 부위원장도 몰랐다면 방통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방통위의 정체성과 위상에 관련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위법·불법 사항이 포함된 가운데 위원회 회의가 전개됐고 운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련된 부처에서 법률과 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직서 제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결재를 받아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서 어떤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안전을 올리기 이전에 상호 간 의견조율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일치된 의견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 또는 티타임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의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을 다시 이 자리에 와서 주장하시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지만 거기에서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티타임에 논의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론 통상적인 티타임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위법사항이나, 아니냐 중대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 티타임에서 꼭 그분이 발언내용을 꼬장꼬장 제가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 의결을 거르는 그 회의에서 ‘지지발언했다’ 그리고 거꾸로 법상 문제가 있는, 자격상 문제가 있는 위원이 반대 발언을 한 것을 기화로 정당한 지위를 가진 제가, 또 고삼석 위원 두 사람이 소수파로 몰렸고 “소수 의견을 달아서 의결하자” 이렇게 나간 것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인 회의절차에서는 지키겠지만 이것은 중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거기에서의 발언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의안 처리하는 찬반 토론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직무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거기에 참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인정합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절차에서는 안 하지요. 그런데 그 티타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의안은 말하자면 의안을 준비하는 그 회의에서 방송평가규칙, 그중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해서 감점을 2배로 올린다, 이것은 의안에서 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소수파가 아니라 2:2 가부동수이면 부결이니까 이것은 빼고 하자고 거기에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대한 역할을...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을 부위원장님이 보시는 것과 제가 보기에 다릅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위원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에는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에 대한 고려와 남아있는 위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정도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다음 회의는 1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7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6분 폐회】